



### 개혁신학 양서연재 3

## 존 칼빈(John Calvin)과 성령의 인치심 (I)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사인 Willem van't Spijker(1926- )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pp. 58-69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교수는 197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씨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포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Calv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싸워야 했는데 이는 칼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돌레토(Sadoletto)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놀랄 정도와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가톨릭과 재세레파에 관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과 재세레파는 모두 성령을 자랑하였다. 그들의 주된 주장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성령은 교회라는 제도에 흡수되었다. 이는 자동주의(automatisme)의 한 형태를 포함하는 직분과 성례에 관한 고정된 견해를 이끌어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세레파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는 가장 개인적인 사건 가운데 성령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에게 주관주의(subjectivism)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칼빈은 양측 사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연결점을 발견했다. “교황과 재세레파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칼빈은 양측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교만한 마음에서 성령을 자랑할 때 이들은 잠정적으로 다름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난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마침내 파묻어 버리고 말았다.”

말씀과 성령에 관한 견해라는 도움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재세레파의 입장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과소평가를 시대의 우측과 좌측을 포괄하는 부족함이라고 불렀다.

그가 성령의 신학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루터보다 말씀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성령을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은혜의 자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단지 말씀이 성령으로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양면성, 즉 상호 연관성은 그 근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사이의 일치성

에 놓여 있다. 이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일치성에 기인한 것이다.

칼빈의 성령 사역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광범위한 것이므로, 그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견해 또한 다양한 측면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는 인치심을 말씀의 확실성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증거는 인치심과 거의 일치한다. 그는 인치심을 믿음에 결부시킨다. 그리고 더욱이 믿음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성령에 의한 인치심을 확립해나간다. 또한 칼빈은 인치심을 선택이 현실화되는 전형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말한다. 택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칼빈이 부שר와 마찬가지로 삶의 성화를 성령의 이 특별한 사역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는가를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 칼빈도 같은 견해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성령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견해는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적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요약하자면, 칼빈이 성령과 그의 직분, 사역, 목표에 관해 주장한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한 색채가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그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나타난 풍부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교리적 발전이 이러한 풍부함을 축소시켰고 후대에 이르러 인치심은 확신이라는 영적 성장의 일면으로만 이해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설명되어져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를 다루는 문헌들을 요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룬 시몬 반데르 린드(S. van der Linde) 교수가 집필한 『칼빈의

성령론(*De leer van de Heilige Geest bij Calvijn*)』(1943)과 같은 단행본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관심의 대상이다. 그 외에 드 부어(J. de Boer)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집필한 『제 2 종교개혁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해(*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volgens de opvatting van de Nadere Reformatie*)』(1968)는 특별히 이 주제에 집중한 단행본으로 주의 깊게 읽어볼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이 주제가 제 2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체험되었는가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성경주석 출판과 관련하여 칼빈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섰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13에 관한 칼빈의 견해이다.

이 구절은 칼빈에게 복음이 제공하는 확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다. 복음에 대한 설교에 의해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을 지니게 된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도구는 에베소인들에게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을 경멸함으로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자리 잡게 만든다. 그러나 이를 대항하는 증거가 주어져 있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고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아직 성령의 사역에 대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직은 이 증거의 효력 그 자체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이 지닌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에 관해서 에베소서는 지적한다. “복음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계속해서 칼빈은 성령을 복음의 진리를 대변하는 보증이며 후원자라고 정의한다. 이

진리는 인간적 권위에 의해 확증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의해서 신뢰를 받는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저지는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인치시는 성령이시다.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인장에서 비롯된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닌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마치 유언과 같은 공식 문서가 인장에 의해 공식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옛날부터 인장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표식이었다. 봉인(slot)에 의해 진짜를 미혹시키려는 것 또는 가짜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인장(zegel)이다. 바울은 이 직분이 성령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후서 1:22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에게 마음의 확실성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시기까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남아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영생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 전부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지닌 참된 확신은 육체의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 확신은 인간적이거나 철학적인 추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에 확신을 제공하는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주어지므로 모든 종류의 의심을 몰아낸다. 믿음의 기초가 인간적 지혜위에 세워지게 될 때 이는 흔들리며 오래 지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교가 믿음을 위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설교가 효력을 지니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성령의 인치심이 믿음에 종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이 성령의 인치심보다 우선적인 것이 된다. 믿음 자체가 두 부분으로 이해되듯이 믿음에 관해서 성령의 두 가지 효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계몽시키실 뿐 아니라 영혼을 강화시키시기

때문이다. 그 완성은 어떤 의심도 전혀 지니지 않은 굳건하고 변화될 수 없는 확신을 뜻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은 모두 성령의 사역에 해당된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신을 누리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그 효력의 차원에서 성령을 약속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분이 약속이 헛되이 제공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의 증거를 허락해주신다.

나는 에베소서 1:13에 대한 칼빈의 주해 일부를 다시 서술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이 구절이 『기독교 강요』와 같은 자신의 다른 작품에서 규칙적으로 명명했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다름 아닌 인치심과 믿음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약속을 유효화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게 될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증거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안전하게 설 수 없음을 뜻한다.” 약속이 그 자체로서 확실하고 강력한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우리를 위해 약속을 확증한다.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와 연결시킨다. 말씀과 성령은 상호 양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는 양자를 상실하지 않은 채 그 관계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개혁신학의 경첩(scharnier, hinge)으로 불리워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개혁신학의 비밀을 접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계몽주의(de Verlichting)가 가져다 준 문제점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

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성경의 권위라는 문제를 논할 수 없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질문은 종교개혁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다. 종교개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따라서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로마교는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하였다. 제세레파들은 “성경이 우리 마음에 공명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은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하였다. 로마교와 제세레파는 성경이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로마교는 교회의 소리, 제세레파는 양심의 소리에 각각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양자의 견해에 모두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은 성경이 자체적으로 내부에 지니고 있는 내적 권위를 변호하였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말씀의 내적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말씀의 효력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 내신다. 이는 교회에서 일어나지만 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의 내적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갈빈의 사고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런 견해를 그들이 새롭게 접할 수 있을 때 오늘날의 신학을 위한 신선한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학적 사고는 대부분 종교개혁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성경의 권위에 관해 지녔던 견해에 의해 지배된다. 성경의 자증적 증거에 대항하여 오늘날의 신학은 자주 그 경험이 성경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현대인의 경험을 그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를 논할 때 성경 자체가 내세우는 자리에 사실상 사람이 올라서게 되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바를 말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한다. 현대신학에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한다. 우리의 경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경험만큼 신뢰할 만하며 권위를 지닌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가 본 것을 성령은 더욱 많이 보게 하신다고 현대 신학자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사조에 대항하여 우리는 성경이 독특하고 종결되었고 그 자체로서 완성된 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으로서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살아있고 능력을 지닌 책이라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확증한다. 칼빈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한다.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대하여 획득하게 되는 우리의 경험이 아닌 말씀 자체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 시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종교는 단지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 가운데 논리적 판단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어리석거나 우스꽝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령의 증거가 모든 추론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완전한 증거이듯이,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인치심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 위탁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신실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 드셔야만 한다” (『기독교 강요』, I, 7, 4).

따라서 성령은 인증으로 불리며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서약으로



불린다. 믿음의 확실성은 성경의 확실성에 달려있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로 일어난다. 경건한 자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까지 흔들리는 것들에 의해 이리 저리로 요동하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성령의 증거나 인치심에 의해서 내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함없이 남아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내적인 가르침을 주신 자는 전적으로 성경을 신뢰한다. 성경은 스스로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 성경에 대해 증명이나 추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받아야 할 신빙성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 얻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의 위엄으로 인해 높임을 받기는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직접 조명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매우 확실하게 성경이 사람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기독교 강요』 I, 7, 5).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결정하신다. 칼빈은 여기에서 그가 성경의 비밀, 즉 성령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 계시의 문제이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관계된 현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바이다.’ 이는 거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 이 현실적 문제의 중요성을 반감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칼빈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참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신 것이라는 사실만

을 기억하도록 하자.” 성령의 증거에 의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그 완전한 권위 내에서 성경이 실제적 현실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게 된다.

성경은 일종의 도구로서 존재하며 완전한 것이다. 성령은 성경에 어떤 계시의 진리를 첨가하지 않는다. 재세례파의 주장에 맞서 이 진리가 강조되었다. 신적 계시의 내용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이 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관한 것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를 증거하신다.

에베소서 1:13-14 본문은 칼빈에게 믿음과 인치심을 아주 강하게 연관시키도록 만들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에 묶을 때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있어서 신뢰의 기초가 놓이게 된다. “말씀을 없애라. 그러면 어떤 믿음도 남을 수 없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III, 2, 6)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에 의해 성령의 증거는 인치심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들로 기록되었다. 이 용어들은 때때로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주며, 믿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제공해준다. 성령은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다. 약속에 관한 성령의 인치심은 또한 신자들이 인격적으로 성령에 의해 증거를 받는 것을 뜻한다. “성령이 내적 스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의 사역에 의해 영생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약속은 허공을 치거나 우리 귀에 맴도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기독교 강요』 III, 1, 4).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며 그는 우리를 말씀의 진리로 이끄신다.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특별히 믿음에 신뢰를 불러일으키신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믿음의 정의에 도달한다. 그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대한 믿음 안에서 복잡하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우리는 단지 교회가 믿는 것을 믿을 따름이라는 주장을 칼빈은 거부한다. 여기에 개인적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는 또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을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거부한다. 이 주장에는 믿음과 사랑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종교개혁의 주장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사랑을 확실함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확실함의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전인적인 차원, 즉 지성과 감성적 능력과 관련시키고 있는가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이 어떻게 영혼의 능력을 찬양하였는가에 관한 견해에 집중할 수 없다. 어쨌든 그가 인간의 영적 실존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음이 분명하다: 지성과 마음. 우리는 또한 의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은 칼빈의 믿음 개념에서 배경에 머무른다. 믿음은 (거룩함을 덧입은) 지성과 (조명된)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방식으로 칼빈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극복해나간다. 그는 교리 (*doctrina*)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생겨난 지적이며 정통 교리적인 칼빈주의의 아버지로서 칼빈이 인식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칼빈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지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지성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관계된다. 파스칼(Pascal)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도 고유한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령의 사역에 의해 깨끗해지며 능력에 의해 강화된다.

이제 우리는 칼빈이 특별히 상세하게 묘사하였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공하고자 한다. 이 정의는 『기독교 강요』 III, 2, 7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

다: “우리는 이제 믿음에 관한 훌륭한 정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인쳐졌다.”

『기독교 강요』의 앞선 단락에서 칼빈은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식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은 것이다(III, 2. 6). 일반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를 향하는데 이는 말씀에 계시된 바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도 믿음에 대한 훌륭한 정의라고 느끼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 머물러 생각할 때 언급되는 하나님의 의지 대신에 우리 믿음의 가장 실질적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급되어야 한다. 즉 의지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뜻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비하심, 또는 선하심으로 표현된다.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해 있는데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에 기초해 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의복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바깥에 계신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아는가?

칼빈은 성령의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두 행위는 각각의 동사로 표현되며 인간 영혼의 특별한 기능을 개별적으로 지칭한다. 계시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우리 지성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인치심의 행위가 있는데 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받은 지식은 계시의 열매이다. 이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조명된다. 이 계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과 일치되는 그의 행위가 있다. 칼빈은 지식이 믿음을 향해 가는 길에 일차적 계단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성령의 이중적 효과에 관해서 칼빈이 말하는데 이는 성령의 원래적 사역의 완성인 신뢰를 재촉한다.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중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행위는 하나의, 그리고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을 먼저 주어진 것이 사라지고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차원에서 믿음의 행위에 첨가되는 것으로, 또는 믿음의 정점, 또는 특별한 행위로 묘사하지 않는다.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또한 믿음의 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이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지식(*intelligentia*)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다.” 이 지식은 우리의 개념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지식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이다.” 이는 견해, 이해, 개념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주는 진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인도하는 지식에 관한 것이다: “...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서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기독교 강요』 III, 2, 16).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으신다는 신뢰에 가득 찬 확신이 거기에서 활짝 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신뢰는 성령의 또 다른, 두 번째 사역인데 이를 통해서 그의 충만한 힘이 계시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 즉 신뢰를 가져온다.

칼빈이 믿음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나중에 투쟁, 싸움, 그리고 의심과 이의 극

복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경에 근거한 경험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없는데 이는 칼빈이 믿음의 심장이라고 부르는(『기독교 강요』 III, 2, 16)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바깥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주어진 것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사역을 확대해서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바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도 계신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주는 또한 인치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신뢰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계시와 인치심이라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을 때늦은, 부수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이를 믿음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다.

후대에 이르러 성령의 이중적 사역은 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 가지 분리된 행위들로 간주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신자로 간주된다고 할 때 그가 결코 확신을 지닐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칼빈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며 결코 그를 제외한 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성장한다. 삶은 이런 방식으로 더욱 충만해져 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 없이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